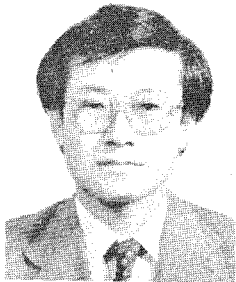


독자기고

# 축산물 수입자유화에 대한 나의 소견

국민전체가 잘살기 위한 비교 우위론적 합리적인 자구책 일지라도 농축산물마저 미국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존권을 포기하기전에는 있을 수 없으며 신중한 대책으로 수입개방 압력에 대응해야 한다.



이 주 앙  
(주)미원 사료사업본부  
사료 영업과

**해방** 후 우리나라는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수출 주도형 공업화 우선정책으로 고도성장을 이룩, 국민소득의 증가로 축산물은 주곡에 버금가는 필수 식량이 되었고 이러한 추세는 경제발전에 따라 지속 될 것이며 축산업의 발전은 식량안보 및 효율적인 국토 이용 차원에서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한국 축산업이 태동하기 시작한 것은 20여년전에 불과하며 그간 공산품에 대한 비교열위로 투자가 극히 부진하여 타산업이나 선진국의 축산업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되어 있다.

바야흐로 국제수지 흑자시대를 맞아 농공병진정책으로 이제라도 축산업에 투자를 확대해야할 시점에서 신보호주의에 따른 선진국의 수입개방압력을 받게 되었으며 특히, 미국은 자국의 무역적자 해결책의 일환으로 축산물의 수입개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한국 축산업의 기반을 송두리째 앗아버리는 현상으로 그 여파를 전망할 때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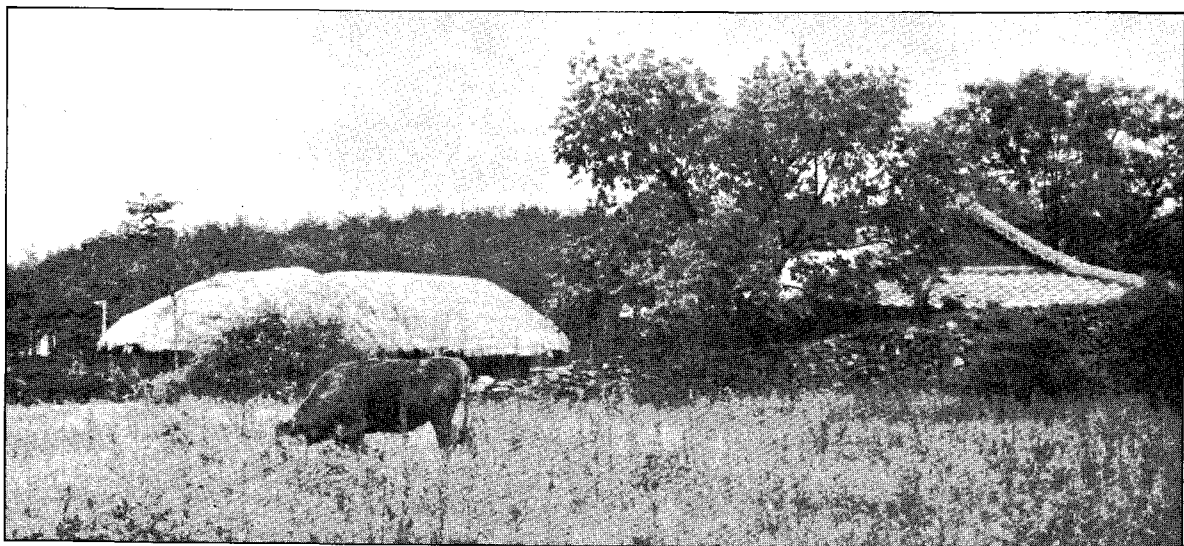
사실, 국내 축산물이란 것도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사료원료를 수입하여 만든 가공품에 불과한데 축산물마저 앗아가버리면 과연 한국축산업은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아무리 국민전체가 잘살기 위한 비교우위론적 합리적인 자구책이라 할지라도 다른 것도 아닌 우리의 축산물마저 미국에 의존한다는 것은 온국민의 생존권을 포기하기 전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신중한 대책을 가지고 수입개방압력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대응책도 없이 단지 수출지향적인 대외경제체제로서의 방향으로 이를 허용한다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현상이 야기될 것인가!

**이제** 마약 유아단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한국 축산물의 현실에서 이미 사료원료는 국내생산기반 구축이 불가능한 상태로써 대부분의 원료를 수입해올 수 밖에 없고 정부의 산업지원 측면에서도 외국의 경우와 비교할때 지극히 불리한 현재의 제한요소 등으로 그렇지 않아도 성장지향적 과당경쟁으로 시설과다가 심각한데 국내의 축산물은 그 소비처를 찾지 못하게 되어 결국 사료곡물산업에 이어 축산물마저 자동적으로 황폐되어 급기야 우리나라는 축산이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될때 안정적 산업발전 및 국가발전은 기대할 수 없고 국제적 식량위기에 봉착될때 우리나라 국민



은 지구상에서 생존을 위한 식량마저 찾을데가 없게 될 것이다.

**우리**는 생존기반확보를 위해서라도 어떠한 이유에도 도저히 식량을 포기할 수는 없다. 다만 수입개방이 불가피하다고 볼때, 축산업발전 및 국가발전 측면에서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시급히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정부는 식량안보적, 생존권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보호와 투자·지원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즉, 축산물의 완전보호와 완전개방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축산물중에서 국제경쟁력이 없고 국내생산기반 구축 및 농가보호 측면에서 필요한 품목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보호·육성되어야 하며 국제경쟁력이 있고 국내여건이 구비된 품목은 수입을 개방, 경쟁력 배양을 가속화하여 수출기반을 구축, 국민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더욱더 거세어진 수입개방 요구를 극복하고, 축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양가는 과학적인 사양관리로 품질개선을 기하고, 관련업계를 투자증대 및 신기술 도입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정부는 이들의 노력이 조화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지원을 하여 장기적으로는 축산 기반조성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점진적이고 선택적인 개방으로 축산물 생산비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배합사료 등 요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우선적으로 갖추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여 사양가, 소비자를 보호하고 관련업체의 발전과 함께 대외통상을 원활히 추진해

야 할 것이며 또한, 본격적인 민주화, 국제화시대를 맞아 축산업 관계자는 물론 전 국민의 외국상품 소비억제가 우리의 식량산업의 육성발전을 지원하는 인내와 협조로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리하여 값 싸고 품질 좋은 사료와 축산물 생산 그리고 자국상품 소비에 적극 협조하는 국민적 합의에 의하여 어떠한 외국상품도 국내에 발붙일 여지를 제공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에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의 축산물 수입자유화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

〈축산물 수입자유화율〉 (단위 : %, 개)

년 도	'84	'85	'86	'87
전 체	80 <sup>*</sup>	87 <sup>*</sup>	91 <sup>*</sup>	93 <sup>*</sup>
농수산물	64 <sup>1</sup>	66 <sup>2</sup>	68 <sup>1</sup>	69 <sup>1</sup>
축 산 물	60 <sup>1</sup>	60 <sup>1</sup>	69 <sup>1</sup>	63 <sup>3</sup>
1987	품 목 수			자 유 화 율
	자 유 화	제 한	계	
수 출	154	1	155	99 <sup>*</sup>
수 입	99	56	155	63 <sup>3</sup>

이미 일부 축산물가공품 및 배합사료는 수입자유화되었고, 외식업계에는 대규모 식품회사가 속속 상륙하고 있으며 5월부터는 미국의 쇠고기가 수입될 것이며 사육기반의 침식으로 오히려 많은 양이 수입될 것이라 한다.

날로 거세어지는 수입개방압력과 축산물의 국내상륙에 축산인의 한사람으로서 구한말의 대원군과 같은 심경으로 우리나라 축산업의 앞날을 걱정하며 또다시 두 주먹을 불끈 쥐어본다. **양지**